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0년도 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행동지침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이 중 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세상 속의 성도들

(시편 140:1-13)

시편 135편부터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속한 시들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즉 예배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시는 구제받을 수 없는 악한 자, 자기를 위해 악을 행하는 자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로마서 3:13에서처럼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을 위하여 악을 사랑하는 이가 안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Christians in the world

(Psalm 140:1-13)

The subject of this section of the Psalter, starting from Psalm 135 to the end, is worship. It explains what worship is, and how we can worship God, who deserves to receive our worship. However, Psalm 140 refers to evil men who do wicked deeds for themselves and cannot be rescued. The psalmist depicts a human figure that was as depraved as what we find in Romans 3:13. The fact that we do not become just like these evil men is completely due to the work of Jesus Christ in our lives. Therefore, we must give thanks to God and praise Him.

1.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위험들

우리는 세상의 난폭성, 기만성 등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을 사랑하는 이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전쟁을 도모하며 울무와 줄을 놓아 선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게 함정에 빠지게 합니다. 시인은 이러한 위험들 가운데 자신이 빠져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70인의 전도자를 파송하실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하셨습니다(눅 10:3).

2.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길뿐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가 주신 구원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6절)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에도 우리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7절).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원수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전에 우리의 머리를 가려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방패시며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3. 하나님을 찬양하라

악인을 이야기한 이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악한 자들을 멸하실 것이고 억압받는 성도를 구원하시며 그들의 마음과 입술이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다 침묵할 때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감사와 찬송을 해야 합니다. 쓰라린 고통도 있었지만 결국 시련을 이기고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악인의 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여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구원받으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 The danger we are surrounded with

We are surrounded with violence and deception in this world. Those who love to do evil devise evil plans, wage wars, spread out snares and cords, and make good people fall into their trap. The psalmist thinks that he himself has been caught in the trap. When Jesus sent out his seventy evangelists, he said, "Go! I am sending you out like lambs among wolves" (Luke 10:3).

2. What can Christians do?

The only thing that Christians can do is to look to God as David did. We must tell God what we need and praise Him, because he will save us. We must confess to God with faith like David, "O Lord, You are my God" (v. 6) and plead for mercy. God is merciful when we come to Him as we are in need of His mercy.

God, who has saved us in the past, will protect us in the present and in the future. "O Sovereign Lord, my strong deliverer, who shields my head in the day of battle..." (v. 7). David prayed that his enemies would be expelled. God, who has shielded our head in the past, will not abandon us. Therefore, we must not be afraid of being harmed when we fight the good fight of the faith. God will always be our shield and our very great reward.

3. Praise the Lord!

Psalm 140, which began by focusing on the wicked, ends with praise. The reason is that God will certainly extinguish the wicked men, deliver believers from their oppression, and make the lips and hearts of believers full of praise to God. While others may stay silent, Christians must lift up thanksgiving and praise to the Lord. Although you may have suffered in pain, you can endure the trials until the end, and praise God on high because of His grace.

My beloved Christians!

We must not be led astray by the wicked hands of this evil world. By serving God with our possessions, petitioning His grace, and receiving preservation, protection, and salvation in God, we must change this world and live a successful life. I earnestly pray that all of us will remain as faithful people of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원로목사 및 서울강남노회 공로목사로 추대키로

4월 7일(수) 정기당회에서 만장일치로

지난 7일(수) 우리교회 당회는 이수종 목사(운무리 교회)를 대리 당회장으로 모신 가운데 정기당회를 열고 우리교회 이종윤 위임목사를 서울교회 원로 목사 및 서울강남노회 공로목사로 각각 추대키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노회의 허락을 받아 추대하며 예식은 당회가 주관하고 선포는 노회가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공로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편 제5장 제27조에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이 있는 목사가 노회에 시무 사면 청원을 할 때,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이며, 제11장 제74조에 공로목사, 무임목사, 증경 노회장은 언권회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은 제2편 정치 제5장 제27조 목사의 칭호에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계속 시무하던 목사가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원로로 추대한 목사다. 원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예우는 지교회 형편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제21조에 헌법 정치 제27조 7항의 원로목사의 추대는 당회에서 발의하여 공동의회에서 가결하고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교회는 공동의회를 열어 투표를 실시하여 이종윤 목사의 서울교회 원로목사 및 서울강남노회 공로목사로 추대하기 위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성도들의 깊은 기도가 요청된다.

찬양대원 세미나

4월 27일(화) 오후 7시 30분

웨스트민스터 홀

찬양대원 세미나가 4월 27일(화) 오후 7시 30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있다. 강사로는 이상길 집사로 현재 지구촌교회 지휘자, 한국 합창 총연합회 회장, 안양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중앙대학교 합창지휘 겸임교수이다. 모든 찬양대원은 반드시 참석하여 찬양대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명과 자질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금주의 성구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음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 (롬4:23-25)

The words "it was credited to him" were written not for him alone, but also for us, to whom God will credit righteousness for us who believe in him who raised Jesus our Lord from the dead. He was delivered over to death for our sins and was raised to life for our justification. (Romans 4:23-25 [NIV])

나의 하나님



새 가족을 섬기면서

전미미집사 (9교구)



저는 10년 전 이종윤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듣고, 서울교회를 사모하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서울교회에 등록하고 저희 가족이 풍성한 은혜를 받았던 새 가족 환영회가 생각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장소가 아닌 건물 옥상의 '천막식당'에서 베풀어진 환영회행사에서 목사님과 많은 교인들로부터 받은 관심과 사랑을 크게 받은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가족부 전도사님과 여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우리를 섬기던 모습을 본받아 부족하지만 배운 대로 새 가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새가족부 수료 후 얼마 되지 않아 새가족부 부교사와 다락방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릴 일이 있음에 기뻐했습니다. 많은 새가족들과 다락방식구들을 신나게 섬기면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더 사랑하고 믿음이 성장하여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감사할 일들이 많아 믿지 않는 친척들이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보네" 할 만큼 강증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새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 중 어려움을 함께 하였던 분들이 가장 많이 기억이 납니다.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알콜 중독으로 온 가족이

힘들었던 성도님, 일본에서 온 우울증을 앓던 여성도님, 자녀와 갈등이 많아 신앙으로 견디기에는 너무 힘들어하던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자주 심방해서 친밀하게 되어 시급한 기도제목을 알아서 내 일 같이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며 형제사랑을 나누니 그들이 빠른 시간 안에 교회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새 가족들이 지금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시고 큰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즈음 저는 새가족부에서 동역교사인 이집사님과 함께 처음 교회 나온 원입교인들을 중점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원입교인들을 섬기면서 가끔 불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배의 귀중함을 모르고 날씨에 따라, 집안 일에 따라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입교인들 옆에는 전도해야 할 대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나서부터 불평을 멈추었습니다.

그중 얼마 전 등록하신 어느 성도님은 30년간 친정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우리교회 권사님의 전도로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그 이후로 전철로 한 시간 거리를 한 주도 빠짐없이 출석하십니다. 얼마 후 그 집을 심방하였을 때 "집사님 우리 형님이 꼭 교회에 가야 하는 사람인데.." 하면서 격정스럽게 말을 흘렸습니다. 그 말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전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어느 주일 예배 후 남편과 함께 멀리 있는 그 성도님의 형님 댁을 방문하

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후 함께 기도하고 규칙적인 말씀 공부 뒤 그 가정에서 어머니와 큰 아들이 등록하고 지금 새 가족부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난 설날에는 남편과 그 가정을 심방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많은 가족들도 곁에 있을 때 담대히 주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순박하고 마음들이 따뜻한 분들이십니다. 남편을 목사님인 줄 알고 "목사님 빨리 기도하쇼. 막걸리 한 잔 하자구요" 하셔서 많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가족 구원이 시급한 것을 보고 그 가족전체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 중 한 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곧 교회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새가족들의 친척들이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접할 수 있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새가족들이 제게 늘 즐거움만 주지는 않습니다. 사탄의 장난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원입식구들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더러 있지만 한 분 한 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있기에 섬기면서 감사하고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섭니다. 저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편에게서 처음으로 전도를 받았고 신앙이 자라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지왔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교회 가족 여러분

사망권세를 깨치시고 영광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떠나 있어야 하는 연습을 하는 셈이지요.

나는 이번 여행을 통해 몇가지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리워하던 형제들과 자녀들 그리고 친척들을 재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뒤로 하고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옆을 보고 뒤를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도시들을 방문하면서 왜 한국인들이 이곳까지 와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도전을 하면서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가는 곳마다 특히 목회자들이 지도자로서 경각심을 갖도록 힘써 외쳤습니다. 물론 서울교회 옛가족들과 만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과 함께 찬양해야 할 내가

왜 다른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도 생각했습니다. 이종윤목사 없어도 서울교회는 잘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박노철목사님께서 교회를 잘 이끄시도록 기도로 크게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모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림백총장의 초청을 받고 40년전 공부했던 캠퍼스에 발을 딛고 감회가 서렸습니다. 교수회가 특별 환영리셉션을 만들어 교제의 기쁨을 나누었고 한국학생들과 별도로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총장께서 내게 두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복음적 영향을 깊이 끼친 것을 존중하여 여겨 웨스트민스터가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코자 하니 받아들일 것과 다른 하나는, 내 이름을 붙인 석좌교수(Private Chair)를 창설하고 싶으니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두 가지가 나에게 분에 넘치는

영광스런 일이지만 기도하고 우리 서울교회와 의논한 후 대답하겠다고 미루었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기보다 서울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주님의 영광이요, 그 주의 사역에 헌신하신 성도 여러분이 받으실 영광이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9일(금)엔 스코트랜드 에딘버러에 가서 이번 여행의 마지막 스케줄 따라 WRF회의를 마치면 내가 학위공부를 했던 세인트 앤드류스를 방문하고 4월 20일 서울에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 두 내외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맑은 사명 잘 감당하고 여러분을 뵈 때까지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서울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쉬임없이 기도드립니다.

불비례(不備禮)합니다.

여러분의 목사 이종윤

만민에게 전도 -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하면서

또 하나의 선교사역

나미용 집사 · 나상민 집사(12교구)

기독교 TV에서 방영한 '어느 아프리카 선교지 이야기'입니다. 현지 원주민 어린이들이 선교사님의 아이를,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나무에 묶어놓고 눈에 못을 박아 실명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TV로 접했을 때 나는 떨정한 눈으로 TV를 보고 있다는 것이 마치 죄를 짓는 것만 같아 영영 울었습니다.

교회 헌당식과 더불어 천명된 서울교회 3대 비전 중 하나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 100명 파송'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울교회가 진정한 복음의 센터로 한 발짝 다가서는, 참으로 가슴 벅찬 비전이었습니다. 그 후로 매 년 파송되는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며, 그분들의 전 생애를 바친 헌신에 감격했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들을 도울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하지만 파송식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런 막연한 고민과 기도는 이내 희미해져갔습니다.

올해부터 우리교회 전체가 선교에 동참하게 되

는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제도'는 매우 귀중한 또 하나의 선교사역으로 생각됩니다. 교인이라면 누구나, 액수와는 상관없이, 작은 정성이라도 성심껏 모아 선교에 동참이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계선교의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실질적인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그 땅을 향하여 한 번 더 기도 할 기회를 얻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대명령을 받고 우리는 후방에서 얼마나 인일했던가요. 새 생명을 구하도록 선교사님들을 영적전쟁의 전방으로 파송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후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파송 전보다도 더 많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소통, 고국의 소식과 정보 제공, 현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자녀 양육과 교육, 사역의 소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두에게 전할 수 있는 정보 채널의 개설, 사역 기간과 그 후에 거주할 처소의 확보 등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해놓고는 관심과 기도, 지원과 책임지는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 또 한번 복음에 빛진자가 아닐까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국 땅으로

분명한 것은 단순히 얼마간의 지원금과 형식적인 기도만으로는 그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교사님들을 더 이상 낯설게 바라보지 말자. 그들이 우리에게 물질로 빛진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에 빛진자입니다. 또한 준비 없는 선교지 방문, 생각 없이 베푸는 선행, 선교지역을 여행지처럼 생각한다면 모두가 경계해야 할 처신입니다. 후방에 있는 우리들도 오직 복음을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 순수한 지원과 거룩한 헌신만이 필요합니다. 마치 그들이 전 삶을 내놓은 것처럼...



만민에게 전도 - 70인전도대

70인 전도대를 향한 나의 사랑

박이선 권사(9교구)

2003년 1월 70인 전도대가 창설될 당시 목요축호전도 한 팀으로 시작되었는데 7년이 지난 지금은 10개 팀으로 번성하여 매 주마다 전도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70인 전도대 수요 아간전도

가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고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70인전도대의 전도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을 받으시고 영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또한 2003년 1월부터 시작된 '전도학교 교육(12주)'도 어느덧 37기로 이어져 1008명의 성도들이 교육을 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에 헌신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가 되면 축호전도팀과 기도팀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로 무장한 후, 축호전도팀은 불신세계로 나아가 전도하고 기도팀은 전도를 지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현장전도와 후원기도가 합쳐져 영혼구원의 사역이 열매를 맺을 때마다 70인 전도대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또한 수요일 오전 9시30분에는 수요기도팀이 노방전도대원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오전 10시에는 문서팀이 태신자에게 엽서를 발송하며 오후 1시30분에는 노방전도팀이 교회주변을 훑으며 전도합니다.

수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후에도 지역복음화를 위한 노방전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미련하게 보이는 축호전도와 노방전도를 통해 수많은 영혼과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평균 20번 이상을 찾아

2008년 1월,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예수 믿는 가족을 몹시 핍박하는 가정을 전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구원을 위해 아내는 30년, 다락방 식구들은 10년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직장을 처음 찾아갔을 때 '본인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라며 단호히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30번 이상을 찾아가는 동안 해가 바뀌었으나 그분을 향한 전도는 계속되었고 드디어 2009년 5월 우리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분의 부부와 함께 10번의 식사교제를 나누고 양쪽 집을 오가며 깊은 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주일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고 새가족부를 수료한 후 세례반에서 교육을 받던 중 와병하여 병상세례를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별세하셨습니다.

아내의 눈물의 기도와 전도자의 전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시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늘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와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서울교회 70인전도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무지개어린이합창단의 찬양으로 드립니다.

맑고 아름다운 음색을 가지고 어린이의 순수함에 예술성을 더한 찬양으로 지난 2월에 정기연주회를 가진 바 있으며 우리교회의 비전중의 하나인 '문화의 기독교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오늘은 '예수 내 주(Joyce Barthelson 편곡)' 외 세곡을 강영모선생의 지휘와 김동아선생의 반주로 찬양드립니다.

제1·2스데반회 주최 특강 4월 17일(토) 오후 3시30분 - 101호

우리교회 제1·2스데반회 (최광성집사, 송인권집사) 주최로 특강이 4월 17일(토) 오후 3시 30분 101호에서 열립니다.

강사로는 최순영 장로 (전 신동아그룹 회장)로 특강 제목은 '10년의 고난, 주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이다. 권사회, 남선교회, 여전도회 회원들도 참여 할 예정이다. 성도들의 기도와 많은 참여 바란다.

동정

■ 특담: (9교구) 양승민 성도 길수현 성도 가정(16교구 임송자 권사 차녀 가정)

■ 주간식당봉사: 리브가전도회(4.11) 제1스데반회(4.18)

■ 금주의 식사: 이강진 집사·송미령집사 가정 (정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 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제13회 화요정오음악회

4월 13일(화) 정오 - 김현정 오르간 연주회



제13회 화요정오음악회가 오르가니스트 김현정 선생의 오르간 연주회로 시작 된다. 관람은 본당 3층에서 하기 바란다.

김현정 / 오르간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회음악과

(B.M.) 및 동대학원(M.M.)

- 프랑스 리옹 국립고등음악원(CNSMD de Lyon) 수페리어과정(DNESM)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콘서버토리 교환학생으로 수학
- 제3회 독일 에어푸르트 국제오르간 콩쿠르 2등
- 현재, 연세대, 한예종, 장신대, 침신대, 백석예대 출강,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2. 해외 집회 중이신 이종윤 목사의 건강과 영력을 위해
3.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4. 북한의 군사적 도발 중단되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 교회오시는 길

